

“BTO_rs·BTO_s, 민간투자시장에서 실효성 있어”

—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정책 과제 설문조사 —

박용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spark@cerik.re.kr

현재 민간투자시장은 침체기에 갇혀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2007년에 사업 건수 120건에 투자 규모가 11.2조원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14건에 2조원 규모로 축소되었다. BTL 대상 사업은 2006~2008년에 군 주거시설, 기능 대학, 철도, 공공 의료기관, 노인 의료기관, 도서관, 하수관거, 초등학교 등 13개 사업 유형에서 금년에는 국립대 기숙사, 군 주거시설, 하수관거 등 3개 사업 유형으로 축소되었고, 사업 한도액도 2007년 9조 9,288억원에서 2015년에는 5,363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15

~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SOC 예산을 5년간 연평균 6.8% 축소하는 대신, 민간 투자 활성화와 공기업의 투자 확대로 부족한 SOC 재정 투자를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 위험 분담 방식인 BTO_rs(위험 분담 방식) 및 BTO_a(손익 공유 방식) 도입을 핵심으로 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5. 4. 8)을 마련하였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SOC 포럼은 정부가 마련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¹⁾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향후 보완할 정책 과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²⁾를 실시했다. 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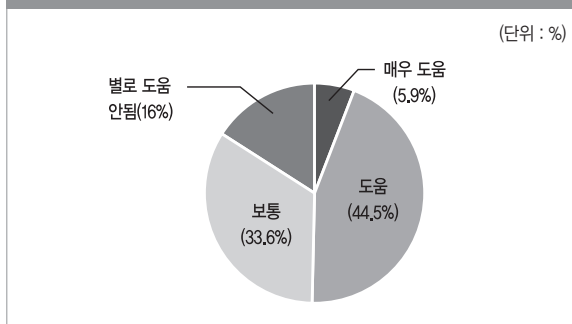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BTO_rs·BTO_a, 민자 활성화에 기여… 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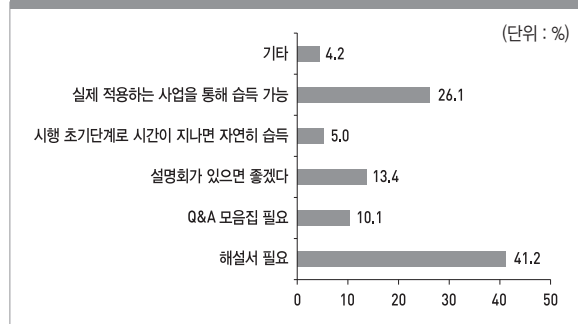
금년 4월에 도입된 투자 위험 분담 방식(BTO_rs, BTO_a)의 민간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응답자의 50.4%는 도움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BTO_rs나 BTO_a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 ‘높음’ 이상을 응답한 비율은 각각 29.6%, 32.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투자 위험 분담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설서 보급,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1) 민간투자사업에 종사하는 건설사, 금융기관/재무적 투자자, 자문회사/법률·회계·연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19명이 응답함.

민간 투자 활성화에 대한 투자 위험 분담 방식의 기여도



투자 위험 분담 방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추진 준비 사업 유형...

경전철, 고속도로 순

투자 위험 분담 방식(BTO_rs, BTO_s)으로 민간투자사업을 검토 또는 제안서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35%가 현재 준비 중이며, 3개월 이내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7.7%로 나타났다.

즉, 조사 대상자의 42.7%가 투자 위험 분담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번의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이 실제 민간투자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 유형으로는 도시 경전철(26.8%)이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24.4%), 지하 도로(15.9%), 환경 사업(14.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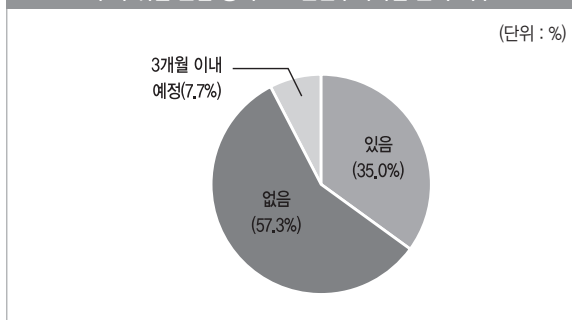
선호도... BTL>BTO-a>BTO-rs>BTO

도로·철도·환경 등 각 사업 유형은 각각 대상 시설의 규모, 사회·경제·입지적 특성, 수요 및 운영 수준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경제성이 결정되고, 동일한 사업 유형이라 하더라도 입지적 특성 등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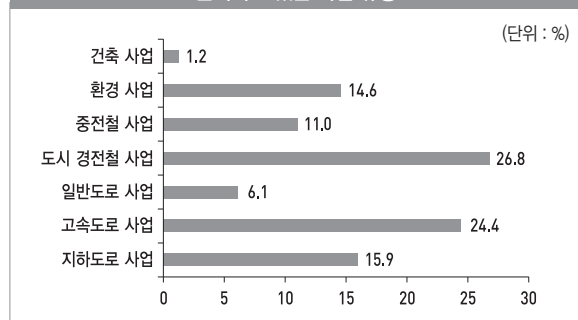
라 경제성 평가의 결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설문 조사에서는 각 사업 유형별로 적합한 민간 투자 방식(BTO, BTO-rs, BTO-a, BTL)을 조사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로 응답자가 합리적으로 적합한 민자 방식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한계로 각 시설별로 특정한 민자 방식이 선호된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조사 방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BTL 방식은 도로, 철도, 항만, 환경, 건축 등 모든 사업 유형에서의

투자 위험 분담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 준비 여부



준비하고 있는 사업 유형



각 사업 유형별로 적합한 민간 투자 방식

(단위 : %, 중복 응답)

사업 유형	수익형 (BTO)	위험 분담형 (BTO_rs)	손익 공유형 (BTO_a)	임대형 (BTL)	기타	계
도로	38.8	21.4	27.2	12.6	—	100.0
철도(경전철 포함)	4.1	39.8	30.6	25.5	—	100.0
항만	9.4	28.2	31.8	30.6	—	100.0
환경 시설(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등)	31.9	14.2	22.0	31.9	—	100.0
건축	13.3	6.7	4.0	73.3	2.7	100.0
비율 합	97.5	110.3	115.6	173.9	2.7	500.0

민간 투자 방식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 참여자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사업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BTL > BTO-a > BTO-rs > BTO의 선호도를 보였다.

민간 투자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 심각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자는 ‘정부의 민간 투자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21.9%)’을

꼽았다. 이어 ‘민자사업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 등의 부정적 인식(20.4%)’, ‘주무 관청 및 PIMAC의 업무 처리 지연(17.8%)’ 순으로 조사되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 투자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위해 정부와 업계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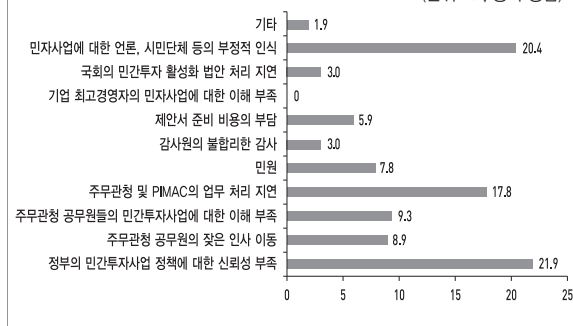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필요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 활성

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해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41.2%)’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민간 투자 대상 사업을 포괄 주의로 전환(24.0%)’, ‘유럽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무료 도로 방식(shadow toll)의 국내 적용(17.6%)’, ‘민간 투자 지원 조직의 내실화 및 서비스 수준 확대(14.5%)’ 순으로 조사되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걸림돌

(단위 : %, 중복 응답)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검토해야 할 정책 과제

(단위 : %, 중복 응답)

